

▶ 전주시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추석명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열흘간의 긴 연휴... 문화충전으로 넉넉한 한가위 보내자

올 추석은 열휴에 가까운 긴 연휴로 인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제격이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 영화는 그 넉넉함을 한층 더 배가시키며 즐거움을 누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내달 7일 '8월의 크리스마스'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에선 따뜻한 가족영화 '해피 버스데이', 알 수 없는 인생 속 다섯 남자의 이야기 '우리의 20세기', 성소수자와 젠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그린 '분장'을 10월 3일 만날 수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해피 버스데이'는 천국의 엄마로부터 배달된 10장의 생일카드를 통해 성장해가는 딸과 가족의 이야기를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담아낸다. 국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미야자키 아오이가 엄마 역을 맡았으며, 청춘스타 하시모토 아이 딸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마이크 밀스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우리의 20세기'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다섯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일상 속 다양한 관계와 사랑, 이쁨 등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에 꼽히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아네트 베닝, 그레타 거윅, 엘르 패닝 등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들이 출연한다.

올해 독립영화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른 '분장'은 남연우가 감독과 주연을 맡았다. 영화는 무명의 연극배우 송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소수자 연극 '다크 라이프'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펼쳐지는 비밀과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로, 주인공 송준이 자신의 말과 행동의 모순을 깨닫는 과정을 섬세하고 솔직하게 묘사해내고 있다.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이후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상, 제6회 서울프라이드영화제 핑크머니상을 수상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10월 7일 상영되는 또 한편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아버지를 모시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짧은 사진사와 그의 앞에 나타난 소녀 같은 주치단속요원의 잔잔한 사랑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유려한 영상미와 세련된 화법으로 개봉 당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한국 멜로영화의 새로운 장을 연 작품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영화는 멜로의 거장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으로 당대 톱스타 한석규와 심은하가 주연을 맡았다. 배우 한석규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작으로 꼽기도 했다. 은퇴 후 불 수 없었던 심은하의 연기를 볼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제36회 대중상영영화 시나리오상, 신인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if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민속놀이 국악한마당' 내달 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은 한가위 '민속놀이마당'과 '국악한마당'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마련한다.

박물관은 연휴기간 동안에 전통 민속놀이(웃놀이·연날리기·투호놀이·활쏘기)와 추위의 놀이(딱지치기·공기놀이·비석치기·동전던지기), 체형 놀이(맷돌 돌리기·지게지기·절구질하기·사물놀이·팽이와 투호 만들기), 전통 놀이 경연(쌍륙 놀이·참 고누 놀이·선비 놀이) 등 다양한 '한가위 민속놀이마당'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추석당일 휴관.

'한가위 국악한마당'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59호인 김은숙 가야금 병창이 선보이는 가야금 산조와 단가 '백발가', 춘향가 중 유명한 '썩대머리' 등을 10월 7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펼쳐 보인다.

30일 오후 3시 박물관 프라에선 1인 서커스 공연 '레인보우 쇼'가 열린다. 광대가 출연해 곱과 볼, 유리구슬을 이용한 저글링부터 디아블로(중국 요요)까지 다양한 기예를 선보이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천하맹인의 눈을 뜬다' 한옥마을 특별공연

(재)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전주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특별공연을 마련한다.

작품은 관소리 심청가의 '황성맹인잔치' 대목을 중심으로 재해석했으며, 현대적이고 젊은 감각을 가미해 2017년판 심청전으로 재탄생시켰다. 공연은 오후 7시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패키지 티켓 이용 시, 오후 3시 전통체험과 오후 5시 30분 잔치음식 그리고 저녁 7시 마당창극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패키지 티켓 1장을 구입하면 1장을 더 주는 '패키지 티켓 1+1 이벤트'는 반값에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별공연 기간에 한복을 입고 공연을 관람하면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프로그램북이 제공된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옥션 티켓에서 하면 된다.

전주어진박물관, 30일부터 이틀간 태조어진 봉안축제

전주어진박물관은 태조어진 봉안축제 '풍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모시다'를 오는 30~10월 1일 양일간 박물관 앞마당에서 연다.

먼저 30일 진행되는 태조어진 과거시험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의 역사문화를 서바이벌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참가자들은 유생복을 입고 시험을 치른다. 장원 급제자에게는 과거시험 합격증서인 홍패와 함께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시험을 마친 뒤에는 어사화를 뜻한 장원을 필두로 한 과거급제자들의 축하행렬이 펼쳐진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접수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어 10월 1일에는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삶을 주제로 한 인형극이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에 공연된다.

또한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는 조선왕실의 사당 조경묘도 축제기간 동안에 개방된다. 경기전 북편에 위치한 조경묘는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과 시조비 경주 김씨의 위패를 봉안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전주시민들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다. 이번에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되어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주문화관광재단 '뫼다 심청' '해적' 공연

전주문화관광재단은 '뫼다 심청'과 '해적'을 좌석등급에 관계없이 5,000원에 즐길 수 있는 문화한가위 이벤트를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뫼다 심청'은 한국의 대표 고전 심청이야기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관소리가 결합된 창작뮤지컬로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점점 잊혀져가는 '효'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오후 4시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된다.

'해적'은 해적은 한국무용·스포츠댄스·마살아트·타악·퍼포먼스에 최신 미디어영상에 융합된 난버널 뮤지컬로, 바다의 해적과 땅의 부족 '천족'의 대립과 화합을 판타지로 엮어낸다. 오후 2시 새만금방조제 내 아리울예술창고에서 만날 수 있다.



한벽문화관 놀이마당서 '희희낙락' 무대

전주한벽문화관 놀이마당에서는 '희희낙락' 공연 한마당이 펼쳐진다.

먼저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후 1시에는 '문화포럼 나니레'가 정하는 전통민요와 관소리 가락을, 5일 2시에는 '사타울림예술원'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Non-Verbal 타악 퍼포먼스를, 6일 2시에는 '자무단'의 스펙터클하고 예술미 넘치는 화려한 검무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과 함께 추첨을 통해 '마당창극 특별공연 티켓'을 나누어 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정리: 정해은 기자



남원시, 추석맞이 다채로운 국악공연 마련

온가족이 모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샌드위치데이였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오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내리 쉬게 되는 황금연휴이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해 남원에서는 다채로운 국악공연 및 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30일 저녁 8시 관한루원 수중무대에서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월매를 사랑한 놀부(입장료 유료)가 마지막 공연을 선보이고 10월 1일 일요일 관한루원에서 국립민속국악원 비리국악단의 일요 관한루원 국악산책 공연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일 토요일 각각 11시와 3시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상설공연 토요일 악조대석에서는 국악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되어 있다.

30일 월매를 사랑한 놀부 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남원시 국악행사 문의는(620-6167), 국립민속국악원 공연 예약 문의는(063-620-2324) 통해 할 수 있다.

추석기간 기악합주, 가야금병창, 민요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남원읍을 찾는 관광객과 남원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의 선율을 들려주고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추석명절 익산시내 곳곳 문화행사 다채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익산을 찾는 귀성객과 익산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행사들은 오는 10월 3~5일까지 익산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10월 3일 오전 11시에는 개천절을 맞아 '단군기원 4350년 개천대제 봉행'이 익산단군성조봉성회 대성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10월 4일 오후 7시에는 '추석맞이 국악잔치 이레도흥 저래도흥' 공연이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시민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레도흥 저래도흥' 공연에서는 공개토시탈

놀이단과 비보이 퍼포먼스, 비트박스과 사자 탈춤 등 전통 국악이 어우러진 색다른 공연으로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흥겨운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오후 1시, 한얼 아사달공원에서 익산 북부지역 주민들과 다문화 가족들이 한 데 어우러지는 '제2회 다문화 가요제 및 가요사랑 한마당'이 펼쳐진다. 멀리 타국에서 온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요제와 초대 가수들이 펼치는 가요 공연이 명절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개천대제·국악잔치 등 펼쳐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삼기농요 지게 목발 노래 및 국악공연'이 명절 문화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 공연에서는 삼기농요 지게 목발 노래를 비롯하여 난타, 어린이 가야금 병창 등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삶의 활력을 찾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강건한 빛이 세계 향해 나아가고 학생·교직원들 덕망 새롭게 되길

하석 박원규 선생이 이끄는 '겸수회' 전북대 개교 70주년 맞아 특별전 열어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가인 하석 박원규 선생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하석 박원규 선생과 문하생으로 구성된 겸수회(兼修會)가 함께 꾸미는 이번 전시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우립갤러리와 20일부터 26일까지 전북대 박물관 등에서 두 차례로 나누어 열린다. 전북대 법학과 동문인 하석 선생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과 '취화선'의 글씨를 쓴 서예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 국내 최초의 서예잡지 창간 등 서예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전시에는 박원규 선생과 그 문하생들이 쓴 80여 점의 크고 작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박 선생의 문하생들의 작품은 모두 대학에 기증되어 전시회 기간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세로 2미터, 가로 6미터로 된 작품



세명으로 이뤄진 대작과 가로 3미터의 크기의 '강건독실 휘광일신기덕(剛健篤實 輝光日新其德)'이라는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역의 대축괘(大畜卦) 단전(爻傳)에 나오는 이 말은 '강건하면서 독실하면 그 빛은 휘황찬란하게 될 것이고 그 덕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다.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영원히 강건하고 독실하여 그 빛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덕망이 항상 새롭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 박원규 선생은 "모교 문을 나선 지 40여 년 만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가지고 다시 이 문으로 들어설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